



대림동성당

(주보성인 : 바오로)

토요 미사	오후 3시 30분 (어린이)
미사	오후 7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미사	오전 6시 (일반)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10시30분(교중):1~10구역
	낮 12시(교중):11~20구역
평일 미사	오후 6시 (청년)
	월·수·금·토 : 오전 6시
	화·수·목·금 : 오전 10시
	화·목 : 오후 7시 30분

사 무 실 TEL : 02-835-1814~5
(FAX : 02-835-1816)
주임신부(박성우 사도요한) TEL : 02-835-1813
보좌신부(이상민 바오로) TEL : 02-835-1812
수녀원 (장 도미니카 수녀) TEL : 02-835-1810
(천 바울리나 수녀)
연령회회장(정기원 다마스) H.P : 010-5476-6833

고해성사	추후 공지
병자영성체	추후 공지
유아세례	씩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사무실에 신청)
혼인면담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 (사무실에 신청)
잠가게자 축복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07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길 10(대림1동) / 홈페이지 <https://club.catholic.or.kr/daerim1004> / 이메일 daerim1004@hanmail.net

✦ 세례성사

새 영세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당의 모든 교우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기도를 바랍니다.

• 세례성사: 8월 22일(주일) 오후2시

✦ 성당청소

• 8월 16일(월) 4구역 청소

✦ 우리들의 정성(7월5일~8월8일)

7/5~7/11 (연중15주일)	주일헌금	4,450,000		
	교무금	9,230,000		
	성소후원금	297,000		
	군중후원금	30,000		
	건축헌금	270,000		
7/12~7/18 (연중16주일)	주일헌금	890,500		
	교무금	2,850,000		
	성소후원금	30,000		
	건축헌금	30,000		
7/19~7/25 (연중17주일)	주일헌금	911,000		
	교무금	3,355,000		
	성소후원금	92,000		
	건축헌금	105,000		
7/26~8/1 (연중18주일)	주일헌금	832,000		
	교무금	9,100,000		
	성소후원금	95,000		
	건축헌금	105,000		
	백신나눔	110,000		
8/2~8/8 (연중19주일)	주일헌금	898,000		
	교무금	5,550,000		
	성소후원금	125,000		
	건축헌금	224,168		
감사헌금	이지우 캐롤린	30만원	익명	30만원
	박선영 플로라	20만원	익명	10만원
	서화주 루시아	10만원	익명	10만원
	박재형 베드로	10만원	익명	10만원
	이안원 아우구스티노	10만원	익명	5만원
	이승준 시몬	10만원	익명	3만원
	조옥희 말다	10만원		
	김연섭 마카렐	10만원		
	김해란 바바리나	8만원		
	최한숙 베로니카	2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지된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입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7월5일~8월8일)

이름	세례명	주소	구역관
김경무	루치아	대림동 e편한세상	1-4
구정순	아테스	신길동 436번지	9-5
김진아	아테스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11-4
송성원	제로마노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16-4

[묵상글] 성모승천: 하늘에 오르신 마리아?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1950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성모님의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승천(昇天: Ascension)하셨지만,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늘로 올라가신(Assumption) 것’이다.

성모님의 육신과 영혼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신약성서를 비롯한 초대 교회의 문헌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승천을 믿을 교리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는 이에 대해 성모님 자신의 권한과 능력 때문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966항).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께서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전구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모님의 승천은 단지 성모님 자신만의 영광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된 신앙의 모범으로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승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언젠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여 예수님의 천상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표지인 것이다.

지금도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당신의 아드님께 전구해 주고 있다.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 역경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성모님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 보자.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전구자로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밝혀 주고 있다.

출처: ‘청주교구 말씀교리’ 김대섭 바오로 신부 글